

호모 파베르의 히어로파니

한 승 훈*

目 次

- I. 노동으로서의 의례, 의례로서의 노동
- II. 농경노동과 광업노동 사이의 의례적 연관성
- III. 영역의 이동과 시간의 대체

멀치아 엘리아데의 작업은 맑스주의 전통에 대해 대항하거나 논박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엘리아데의 연구들은 맑스주의 이데올로기를 현대 사상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의식하면서도 고유의 통일성을 소유하는 창조적 학문의 작업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엘리아데의 작업은 해석학적 시도였기 때문에, 잠재적이고 명시적인 맑스주의의 문제들에 똑같이 직면하였고, 맑스주의의 대답을 잘 알고 있었다.)

Charles H. Long

찰스 롱은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을 재해석하면서, 오토(Rudolf Otto)와 엘리아데의 종교적 인식론을 비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오토는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종교적 형식들로 표현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반면, 엘리아데의 작업은 어떻게 물질(matter)의 형식이 의식과 경험(히어로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C. Long "Mircea Eliade and the Imagining of Matter", *Journal of Culture and Religious theory*, vol. 1, no. 2, 2000, section XXXVII.

니)의 양식을 불러내는지를 다루고 있다.²⁾ 계속해서 롱은 엘리아데의 형태론을 호모 텔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 호모 파베르(homo faber),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aeconomicus)의 관계로 재해석하면서 ‘물질의 상상력’에 대한 중요한 텍스트로 『대장장이와 연금술사』(*Forgerons et Alchimistes*)를 선택하고 있다.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의 프랑스어판은 1956년에 발간되었으며, 엘리아데가 시카고로 온 후인 1962년에 영어판(Stephen Corrin 역, *The Forge and the Crucib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ition)으로 번역되었다. 엘리아데는 이후 시카고대학에서의 두 차례 세미나를 거쳐 이 책의 증보판을 1976년(영역은 1977년)에 발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원시 사회의 행위를 이해하고, 물질의 존재 양식을 바꾸는 그들의 힘을 발견했을 때의 그들이 겪은 영적인 모험을 추적하고자 했다.”³⁾ 앞서 언급한 엘리아데의 종교적 인식론은 여기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그런데 엘리아데의 다른 저작들, 특히 『종교형태론』과 비교할 때, 『대장장이와 연금술사』는 다소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종교형태론』에서 히에로파니와 관계되는 대상은 주로 천공, 태양, 달, 돌, 물, 대지, 식물 등과 같은 자연물이었다. 그런데 이 책의 3부에서 엘리아데는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농경의례와 건축의례를 다루면서 자연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의 히에로파니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호모 파베르이기도 한 호모 텔리기오수스가 자신의 노동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성스러움을 경험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대장장이와 연금술사』는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이 ‘광물’에 대한 노동을 어떻게 성현으로서 경험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 짧은 글의 목적은 『대장장이와 연금술사』를 중심으로 노동과의 관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동이 의례가 되는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비교종교학은 노동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노동은 어떤 방식으로 성스러움에 대한 경험을 가져오는가?

2) Ibid., section III.

3) M. Eliade, *The Forge and the Crucible*, 2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ition, 1978, p. 7.

I. 노동으로서의 의례, 의례로서의 노동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노동은 의례를 정의할 수 있는 1차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의례는 목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며, 어떤 식이든 대상을 변형시켜 독특한 가치(종교적 의미)를 생산한다. 또한 관념적 모델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을 동물의 노동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모든 의례는 기본적으로 노동 과정이다. 본격적으로 노동을 철학의 대상으로 호명한 맑스의 노동 정의를 보면 이런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노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대사(metabolism)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인간은 하나의 자연력으로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material)을 상대한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기 자신에 적합한 형태로 획득하기 위해 (자기의 신체에 속하는 자연력인)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운동시킨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연(천성)을 변화시킨다. ... 그러나 가장 서투른 건축가를 가장 훌륭한 꿀벌과 구별하는 점은,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자기의 머리 속에서 그것을 짓는다는 것이다. 노동과정에 끝에 가서는 그 시초에 이미 노동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고 있던(즉, 관념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⁴⁾

인간의 몸을 포함한 자연물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의식적인 행위라는 면에서, 노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의례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의례도 노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엘리아데 역시 의례와 노동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

4) K. Marx, *Das Capital*, 김수행 역, 『자본론 — 정치경제학 비판 —』 I(상), 비봉출판사, 2001, 235~236쪽.

경작자는 풍부한 성스러움의 영역에 들어가 그것과 합일되었다. 그의 활동과 노동은 성스러운 의미를 갖는다. … 농경노동은 하나의 의례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 대지의 어머니 몸 위에서 행해지며 식물의 성스러운 힘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2) 농민이 유익하거나 해로운 시간에 통합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3) 어떤 위험(대지가 개벽되기 이전에 주인이었던 정령의 분노에 의한)을 내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례이다. 또 (4) 곡물의 증식을 돕는 농민의 일을 신성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여러 행태와 기원의 제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5) 농민을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의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의례이다.⁵⁾ (번호는 인용자)

엘리아데는 농경 ‘의례’가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 ‘노동’이 ‘의례’라고 말하고 있다. “호모 텔리기오수스의 이상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의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모든 노동은 성스러운 것으로 경험될 가능성을 가진다. “자연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원천이고, 노동은 의례의 원천이다.”⁷⁾ 엘리아데가 농경노동을 의례라고 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자. (1)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행위가 노동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상징적인 영향력과 관계된다. (2)는 행위자가 노동을 통해 통합되는 다른 시간의 속성과 관계된다. (3)은 행위가 가진 상징적인 위험을 말하고 있다. (4)는 노동을 신성하게 하려는 제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5)는 행위자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의례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 수렵, 도축, 채집, 조리, 농업, 공업, 어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은 의례이다.

5) M.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433~435쪽.

6) Ibid., 574쪽.

7) M. Eliade, *The Forge and the Crucible*, p. 174.

II. 농경노동과 광업노동 사이의 의례적 연관성

그렇다면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에서 다루어지는 광부, 야금공, 대장장이, 연금술사들의 노동에 대한 다양한 신화와 상징도 위의 다섯 항을 통해 농경노동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텍스트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이나 흥미로운 작업이 되겠지만, 이 간략한 고찰에서는 한두 가지씩의 예만 찾아 보고자 한다.

(1) 농업이 지모신의 몸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광업은 지모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농업이 땅의 생식력을 해방하고 증대시키는 활동이라면, 광업은 땅의 생식력을 대신하는 작업이다. 광부는 지모신의 몸속으로 들어가 미숙한 태아 상태의 광물을 꺼내 온다. 이 광물은 그냥 두면 지모신의 품속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해서 금속이 되겠지만, 인간은 “자신이 자연의 작업에 협력할 수 있고, 대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장 과정을 도울 수 있다고 느낀다. 그는 지하에서 벌어지는(chthonian) 느린 성숙의 리듬을 촉진하고 가속한다.” 연금술사 역시 “스스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자연의 작업을 맡아 완성시킨다.”⁸⁾

(4) 농업과 광업은 모두 희생제의를 포함하여 생명력을 이전하고, 생식력을 증대시키며, 노동행위를 신성하게 하는 다양한 제의를 수반한다. 광석은 지모신의 모태 속에서 자라나고 성숙하는 태아로, 혹은 양분을 섭취해서 자라나는 식물의 이미지로, 때로는 마치 동물과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농업의례와 광업의례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유사성들의 기반이 된다.

흥미로운 차이는 농업의 생식력을 증대시키는 의례에서는 집단적인 오르기, 의례적인 누드, 밭에서 성교하기 등 에로틱한 행위가 주

8) Ibid., p. 47.

로 강조되는 반면, 광업 의례는 성적인 금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광부는 성적인 금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금기를 지켜야 했고, 의례적 정결이 대단히 중요시된다. 이것은 광석이 원래의 ‘자궁’인 지하에서 인공적인 새 ‘자궁’인 용광로로 이동된 후에도 계속된다. 많은 지역의 대장장이들은 야금 작업을 하는 중에 성관계를 중시하고, 몽정을 한 일꾼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되어야 한다.⁹⁾

엘리아데는 이런 금기를 불이나 용해 작업이 성행위와 동일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즉, “용광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술적 결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인의 모든 성적인 에너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¹⁰⁾는 것이다. 농업의 경우, ‘신성결혼’은 정액인 비를 뿌리는 하늘과 식물을 기르는 땅의 결합이다. 여기에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그것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광업의 경우에는 인간의 노동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속의 ‘신성결혼’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은 ‘불의 지배자’인 대장장이 뿐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더욱 크고, 따라서 물질의 변형에 필수적인 성적 에너지의 사용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노동의 속성이 가지는 이러한 의례적 차이는 행위자가 노동을 통해 통합되게 되는 시간의 속성과도 관련된다. 농경의 시간은 주기적이고 순환적이다. 인간은 농경을 통해 성장하고, 죽고, 부활하는 식물의 시간 속으로 통합된다. “농경사회는 폐쇄된 시간의 순환과 결합되어 있다.”¹¹⁾ 반면 광업의 시간은 직선적이다. 광물은 생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식물에서 강조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주기적인 리듬이라면, 광물에서 강조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성숙의 리듬이다. 따라서 금속에 대한 조작을 발견하면서, 인간은 새로운 시간의 리듬 속으로 통합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자연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떠맡게 되면서, 인간은 시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¹²⁾

9) Ibid., pp. 57~60.

10) Ibid., p. 60.

11) M. Eliade, 『종교형태론』, 434쪽.

(5)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개체적 형태를 잃고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씨)로 변화한다. 농업 노동이 인간을 죽은 자의 영역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대지와와의 연대성을 통해 종자가 가진 죽음과 부활의 잠재력에 죽은 자를 투사한다는 측면이고,¹³⁾ 다른 하나는 오르기와 같은 의례적 행위를 통해 인간 스스로를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측면이다. “오르기는 인간을 농경적 상태로 변화시킨다. 규범이나 한계, 개성을 모두 폐기하고 대지나 밤을 체험할 수 있게 자신을 열어놓음으로써, 인간은 땅속에서 분해되어 자신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식물을 낳는 상태를 획득하는 것이다.¹⁴⁾

“죽음’은 부정형으로의 퇴행, 혼돈으로의 재통합을 표상한다.”¹⁵⁾ 광물의 경우도 인간의 개입이 있을 경우에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다. 연금술 조작의 차원에서 ‘죽음’은 유동상태의 원물질로의 퇴행인 ‘니그레도’(黑化, the *nigredo*) 단계에 해당한다. 한 번 ‘죽은’ 이 물질은 백화(白化)단계에서 응고되어 ‘소생’한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의 조작을 통해, 물질과 함께 죽고, 함께 태어나 새로운 육체로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물질의 완성과 함께, 자신의 영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¹⁶⁾ 노동은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노동자 자신의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맑스의 통찰은 엘리야데에 와서는 죽음과 재생이라는 통과 의례적 과정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3)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위험을 내포한 행위라는 측면에서의 의례적 노동에 대해서이다. 위험은 영역의 침범에서 생긴다. 농경은 대지가 개벽되기 이전의 주인이었던 여러 영적 존재의 영역에 농기구를 찢러 넣는 행위이다. 따라서 농경노동에서는 그런 힘들의 분노

12) M. Eliade, *The Forge and the Crucible*, p. 169.

13) M. Eliade, 『종교형태론』, 456~459쪽.

14) Ibid., 466~467쪽.

15) M. Eliade, *The Forge and the Crucible*, p. 153.

16) Ibid., pp. 158~175.

를 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한편, 광물을 다루는 노동에서는 위협의 정도가 훨씬 강해진다. 광물은 기본적으로 친밀한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다.¹⁷⁾ 그것은 운석과 같이 하늘의 신성성을 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거나, 지모신의 신성성을 가진 채로 땅속에서 채취된다. 따라서 채굴과 연금술 작업은 영적 존재들의 협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금기를 깨지 않도록 대단한 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¹⁸⁾

광업 노동이 가진 다른 차원의 위협은 대장장이에 대한 증오와 공포이다. 많은 신화에서 철에 대한 증오와 불의 통달자에 대한 악마적 이미지가 발견되고, 결과적으로 대장장이업에 대한 증오가 발견된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철기시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대학살, 집단 노예제와 거의 일반적인 빈곤으로 특징지어진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전체 신화체계(whole mythology)가 철을 다루는 노동자(iron-worker)들을 거인들과 악마들의 여러 범주 속에 분류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다른 시대와 다른 전통을 나타내는 신들의 적이다.¹⁹⁾

그런데 초기의 대장장이 역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다. “대장장이는 무엇보다 철을 다루는 노동자이고, 그의 유목적 조건(nomadic condition) — 가공하지 않은 금속을 찾고, 주문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과 접촉하게 된다.”²⁰⁾ 철기 시대에 대한 역사적 공포와 대장장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자성은 철을 다루는 노동에 대한 위협을 환기시킨다.

농경 노동-의례와의 이와 같은 비교는 광물을 다루는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례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이 비교는 노동의 성격에 따라 노동 속에서 경험되는 성스러움의 내용 역시 달라

17) M. Eliade, *Ibid.*, p. 27.

18) 광부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협과 신성성에 대해서는 M. Eliade, *Ibid.*, pp. 56~57.

19) M. Eliade, *Ibid.*, p. 67.

20) *Ibid.*, p. 25.

진다는 사실 역시 보여준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역사적인 고찰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어떤 자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가, 또한 어떤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타자의 노동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는가에 따라서 노동을 통한 성현은 다양한 양태를 보이게 된다.

III. 영역의 이동과 시간의 대체

나는 엘리야데가 통찰한 ‘의례로서의 노동’과 사회과학적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노동으로서의 의례’를 모두 바라보았으면 한다. 전자는 노동이 가진 종교적 의미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의례가 가진 노동으로서의 구조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노동 및 의례 양자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주로 ‘의례로서의 노동’을 다루었으니, 이제는 의례가 어떤 식으로 노동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의례는 노동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의례는 없다. 또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의례는 없다. 인간의 노동을 동물의 노동과 구분하는 것은 머릿속에 미리 관념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몸을 움직인다는 것에 있다. 어떤 노동은 특수한 ‘모델’을 가지고 독특한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을 의례라고 부른다. 의례의 모델은 신성한 원형이고, 생산되는 가치는 삶의 성화(聖化)이다. 또한 의례적 활동은 생리적, 심리적 활동을 변화시키기도 한다.²¹⁾

그러나 의례의 노동과정 일반을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광부, 대장장이(야금공 포함), 연금술사의 의례적 작업을 노동개념을 통해 고찰해 보겠다.

인간을 위해 최초부터 식량 또는 생활수단을 마련해 주고 있는 토지(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물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인간노동의 일반적 대상으로서 인간 축의 수고 없이 존재한다. 노동에 의해 자연환경과의 직접적

21) M. Eliade, 『종교형태론』, 573~574쪽.

연결로부터 분리된 데 불과한 물건들도 모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노동 대상이다. 예컨대, 그 자연환경인 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잡힌 물고기, 원시림에서 벌목된 원목, 광맥에서 채취된 광석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노동대상 그 자체가 이미 과거의 노동이 스며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원료(raw material)라고 부른다. 예컨대 이미 채굴되어 세광(洗鑛) 과정에 들어가는 광석이 그것이다.²²⁾

맑스의 이 설명대로라면, 광업은 노동력을 투입해 광물과 자연환경(땅) 사이의 직접적 연결을 끊고 원료로 만드는 과정이다. 원료를 획득하는 노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거주 영역 밖에 있는 물질을 인간의 세계 속으로 이전하는 작업이다. 수중 세계에 있는 물고기, 숲의 세계에 있는 나무, 지하 세계에 있는 광물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 세계로 운반된다. 그리고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이 낱 것의 물질(raw material)은 그 본질상 외부 세계에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과 신화를 창출한다.

노동으로서의 의례의 첫 번째 양상은 대상을 상징적인 영역과 영역 사이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문명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 인간의 영역과 동물의 영역, 내지인의 영역과 이방인의 영역,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 등이 포함된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타자의 영역 사이의 이동이다. 유사한 노동에 있어서도 이 영역의 경계는 변화한다. 수렵과 채집 활동은 자연의 영역에서 문명의 영역으로 대상을 이동하는 노동이지만, 농경과 목축 활동은 문명의 영역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식물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의 이동이다.

그러나 영역의 이동을 통해 획득한 ‘낱 것’인 물질은 인간의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익혀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원료에 대한 2차적인 노동을 통해 가치를 증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가공, 즉 질적, 화학적 변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이 노동으로서의 의례의 두 번째 양상이다. 의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물질의 성장 리듬의 가속화, 그리고 카오스로

22) K. Marx, op. cit., 237쪽.

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앞의 것이 ‘움기는 노동’이라면 이것은 ‘익히는 노동’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을 ‘시간’을 통해 ‘측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 즉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 만약 12원으로 표현되는 양을 생산하는 데 24노동시간(즉, 2노동일)이 걸린다면, 이 면사에는 우선 2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는 셈이 된다.²³⁾

어째서 맑스 시대의 사람들은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엘리아데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대체하기에 이른 것은 물리학, 화학과 산업의 약진이 지배하는 19세기에 와서이다. 바로 이 19세기에 광산, 탄광, 유전을 점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그때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규모로 시간의 리듬을 가속시키려는 인간의 욕구가 실현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때에 생명이 광물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비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된 유기화학이 무수한 ‘합성’ 제품의 길을 열게 된다. 그리고 이들 합성 제품이 시간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자연에서 만들어지려면 수천 년이 소요될 분량의 물질을 작업실과 공장에서 제작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즉, 물리학, 화학을 통해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자연에 대항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이제는 과학과 노동이 시간의 작업을 행하게 된다. 자신에게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즉 응용 지식과 노동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현대인은 시간 지속의 작용을 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시간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²⁴⁾

23) K. Marx, *Ibid.*, 247~248쪽.

24) M. Eliade, *The Forge and the Crucible*, pp. 173~174.

그러나 인간의 노동이 시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자체가 19세기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야금 작업을 통해 금속을 만드는 것이나, 금속을 더 완전한 형태로 변성시키는 것은 종교적 관념체계에 서는 시간의 리듬을 가속화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연금술사와 현대 이전의 노동자들은 “시간을 대신하면서도 시간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²⁵⁾ 연금술사가 개인적 차원에서 물질을 조작하며 세계의 종말과 재창조라는 작업을 반복할 때, 그는 시간에 대한 지배를 달성하며 성스러움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런 꿈이 과학과 현대 산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게 되고 형식화되자, 시간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졌다. 노동이 비의례적 차원으로 세속화된 것이다.²⁶⁾

노동의 탈성화를 가져온 역사적 맥락은 그 외에도 있다. 분업의 발달로 노동은 총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분적인 개별 동작으로 경험된다. 여기에서 노동 시간의 질적 리듬은 파괴되고 시간은 균질화된다. 균질화되어 무의미한 시간은 ‘노동시간’이라는 수치로 측정 가능하게 되어 오직 양적으로만 파악된다. 이로써 의례적 시간은 노동에서 단절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의례와 노동의 관계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의례와 노동은 각각 성의 행위와 속의 행위라는 점에서 성숙의 변증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의례와 노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모든 노동은 의례가 될 잠재력을 가진다. 한편, 모든 의례는 노동과정을 통해서만 실천될 수 있다. 노동은 성스러운 것으로 경험되는 자연적 세계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가공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성현의 원천이 된다. 또한 노동의 조건과 속성에 따라 경험의 내용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의례로서의 노동, 물질의 조작을 통한 성현 경험, 공동체의 노동과 세계관 사이의 관계, 그리고 타자의 노동에 대한 경험과 같은 문제는 각각이 비교종교학의 한 주제로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엘리

25) Ibid., p. 174.

26) Ibid., pp. 175~177.

아테는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부싯돌로 도구를 제작하고, 불을 이용하여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게 된 구석기시대, 농경과 도기 제조가 시작된 신석기시대, 채광과 야금 작업이 이루어진 철기시대, 인간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성을 경험할 수 없게 된 현대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²⁷⁾ 이것은 영적인 상징의 역사와 사회경제적인 역사를 총체적으로 결합시킨 성공적인 모델로 보인다. 호모 파베르이기도 한 호모 텔리기오수스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엘리아데의 방법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할 것인가이다.

27) M. Eliade, *Ibid.*, pp. 142~143.

Abstract

Homo Faber's Hierophany:

M. Eliade, *Forgerons et Alchimist*

Han, Seung-H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ritual and the labor by reinterpreting *Forgerons et Alchimistes* by Mircea Eliade. There are two available approach to this theme.

The first one is the social scientific approach, which deals the ritual as the labor. As a conscious manipulation of matter by a human being, every ritual can be explained by a labor process, and to analyze that process will be the best way to achieve our purpose.

The second approach, which regards the labor as the ritual, is the other in Eliadian tradition. Eliade mentioned that farm labor is a rite because of five reasons in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We can apply this mention to other labors, particularly mining works.

We need to accept both two approach. Eliadian tradition shows the religious meaning of labor and social scientific tradition shows the structure of the ritual as the labor. By this mean, we can understand the dialectic of the ritual and the labor. Every labor can become a ritual, and every ritual can be practiced only by the labor process like "transferring" from a territory into another or "maturing" by substituting the time.

Eliade's method is a useful model to study a human being who is both *homo faber* and *homo religiosus*. However,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needs to succeed to and develop his heritage in order to study the theme "human labor and religion."